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 질

Preadolescent Communication Skills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by Institutionalization, Sex, and Age

김진경*
Kim, Jin Kyoung
유안진**
Yoo, An Jin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preadolescent communication skills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by institutionalization, sex, and age and tested the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The subjects were 98 institutionalized and 115 homereared preadolescents. Interviews measured the communication skills of persuasive, comforting, and listener-adapted abilities.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was investigated through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both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institutionalized and homereared subjects in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and in communication skills by sex, and age.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Key Words : 시설거주여부(institutionalized or not), 의사소통 기술(communication skill), 또래관계 질(quality of peer relationship)

* 접수 2002년 2월 8일, 채택 2002년 2월 23일

*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E-mail : holyjin77@hanmail.net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I. 서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발달과 성적 성숙이 일어나며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중대한 발달 과업이 요구되고 여러 가지 문제 노출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시기다(Buhrmester, 1990).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중간단계로서, 청소년은 정체감 위기로 인한 좌절과 갈등을 겪으며 급격한 신체적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과 혼란을 경험한다(Berndt, 1982). 청소년기는 인생 중 불안정한 시기인 만큼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특징, 사회적 환경과 맥락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또래괴롭힘, 학교부적응 및 학교폭력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양원경, 1999). 청소년 문제는 환경의 영향에 취약한 청소년에게 있어서 그 영향력이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청소년기에 부각되는 문제들의 공통점으로 또래집단의 영향력을 들 수 있는데, 또래집단으로부터의 고립, 비행또래집단의 형성 등은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을 초래한다.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과 거부를 경험한 청소년은 우울·불안·고독감 등의 심리적 문제, 학교부적응·반사회적 행동·공격행동·대인기피·비행 등의 행동상의 문제를 경험하기 쉽다(양원경, 1999; 최진희, 1999; Hecht, Inderbitzen, & Bukoski, 1998; Kochenderfer & Ladd, 1996). 청소년에게 또래집단은 당면한 공통의 문제와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 전형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정서적·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기에 더욱 중요하다(문은영, 1993). 또한 청소년기에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가함(Buhrmester

& Furman, 1992)에 따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또래집단은 더욱 특별해진다. 어린 아동은 특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집단을 또래집단으로 간주하는 반면, 청소년은 친밀감·신뢰·상호존중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기반해서 또래관계를 형성한다. 초기 청소년기 동안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우정관계에 대한 기대의 변화(Selman, 1980; Smollar & Youniss, 1982)와, 사회적·인지적 기술의 발달(Berndt, 1982)로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인 만 11세, 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또래관계 질의 변화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진행된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내적 측면으로 자아존중감, 사회적응력, 고독감, 문제행동 등과(문은영, 1993; 양원경, 1999), 개인간 측면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 등과 관련지어서 이루어졌다(서명성, 1998; 정윤경, 1997). 반면,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시킴으로써, 또래관계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의사소통 기술이란 '대인관계의 상황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수용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로서, 언어발달의 사회의사소통적 측면과 관련있는 기술이다. 즉 문법적 문장을 산출하는 언어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이나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술의 하나인 의사소통 기술은 또래수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Asher & Oden, 1977; Riggio, 1986).

의사소통 기술은 환경의 변화와 자극에 의해 발달하고 향상하는 기술이다.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한 아동에게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시킨 결과,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Bierman & Furman, 1984)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사소통 기술은 발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의사소통 기술은 개인의 고유한 지적 능력이라기보다는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형성되고 촉진되는 기술이므로, 효과적이고 적절한 중재전략을 통해 강화·증진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 기술은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에 지속적으로 발달한다(Alvy, 1973; Burleson, 1982; Clark & Delia, 1976; Delia & Clare, 1977; Delia, Kline, & Burleson, 1979; Krauss & Glucksberg, 1969; Ritter, 1979). 의사소통 기술은 연령에 따라 발달하기 때문에 각 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내에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정되어 이뤄졌을 뿐(송미선, 1995), 과도기적 시기인 초기 청소년들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의사소통 기술이 갖는 의미는 문화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은 국외 연구 결과들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한편, 의사소통 기술은 부모의 바람직한 모델링과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한다(Elicker, Englund, & Sroufe, 1992).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다양한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육아시설에서 거주하는 시설청소년은 불안정한 초기 가정환경과 집단적인 시설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의사소통 기술이 부적절하게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시설청소년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시설청소년에게 또래집단은 대체관계망으로서, 부모부재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상할 수 있는 중요한 집단이다. 또래집단은 시설청소년에게 정서적·심리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성영혜·김연진, 1997)를 고려해볼 때, 다양한 연령의 아동 및 청소년이 함께 거주하는 시설환경은 또래간의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설환경의 장점을 이용해서 시설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설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설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 중 특히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과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래관계 질을 향상시키는 중재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또래수용과 관련 있는 의사소통 기술로 설득 기술(persuasive skill), 위로 기술(comforting skill), 대상참조 기술(listener-adapted skill)을 의사소통 기술의 하위기술로 선택하였다(Burleson, 1986; Coie et al, 1990). 선행연구를 참고하여(Delia, Kline & Burleson, 1979; Delia & Clare, 1977; Ritter, 1979), 설득 기술이란 자신의 뜻이 대상과 다를 때, 자신의 생각에 대상이 동의하도록 권유하는 능력으로, 위로 기술이란 스트레스 받은 대상의 감정을 공감하며 대상의 감정을 완화시

키기 위해 격려하는 능력으로, 대상참조 기술이란 상대적으로 다른 대상의 특징을 인지하고 이를 고려하면서 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연구문제 1 또래관계 질(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은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의사소통 기술(설득 기술, 위로 기술, 대상참조 기술)은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 질간에 관계는 유의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11개 육아시설에 거주하는 11세, 14세 청소년 98명과, 부모와 동거하는 중산층 가정의 11세, 14세 청소년 115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사춘기 직전 시기인 초등학교 5학년(만 11세)과 사춘기인 중학교 2학년(만 14세) 사이에 신체적·심리적 변화와 또래관계나 우정에 대한 기대의 변화로 인해(Berndt, 1982; Selman, 1980; Smollar & Youniss, 1982), 또래관계 질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역할조망능력·공감능력과 같은 사회인지적 기술의 발달로 인해

(Burlleson, 1982; Clark & Delia, 1976; Delia, Kline, & Burlleson, 1979), 의사소통 기술이 발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11세, 14세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및 평정척도

1) 또래관계 질

또래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는 Furman과 Buhrmester (1985)의 NRI(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 항목 중 또래와의 관계에서 주로 보이는 특성만을 추출하였고, 이를 번안하고 수정하였다. 우의, 상호친밀감, 정서적지지, 갈등해결, 인기, 만족도로 구성된 긍정적 요인 20문항과 갈등·대립, 일방적 주도, 철회·고립, 무시, 불만족으로 구성된 부정적 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된 '또래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래관계 질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9이었다.

2) 의사소통 기술

의사소통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대상 청소년들에게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특별한

〈표 1〉 연구대상 청소년

집단	연령	성별	빈도(%)
일 반	11세	남아	27(23.5)
		여아	25(21.7)
	14세	남아	31(27)
		여아	32(27.8)
시 설	11세	남아	25(25.5)
		여아	20(20.4)
	14세	남아	23(23.5)
		여아	30(30.6)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질문한다. 의사소통 기술을 평정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평정체계를 기준으로 국내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아동학 박사과정 2명이 평정체계를 검토하여 안면 타당도를 입증받았다. 또한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 2명과 박사과정생 2명이 평정체제로 예비 조사를 평정한 결과, 일치도가 87%였다.

① 설득 기술 -선행연구(Delia, Kline & Burleson, 1979)를 참고로 자신과 생각이 다른 대상을 설득해야만 하는 2가지 상황을 청소년에게 제시하고, 대상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질문한다. 즉각적인 대답을 얻은 후, 대상이 거절했다고 상상하고 다시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질문한다. 즉각적인 대답(거절) 이후 다시 요구하라는 두 번째 질문의 대답으로 설득 기술을 평정한다. 설득 메시지는 '대상의 관점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가'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박사과정생 2명과 박사학위 소지자 2명이 예비조사를 평정한 결과, 일치도가 88%였다.

② 위로 기술 -선행연구(Ritter, 1979)를 참고로 특별한 사건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대상이 있다고 가정하고, 자신의 실수로 오히려 대상의 기분이 더욱 나빠졌을 2가지 상황을 청소년에게 제시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상의 기분이 어떠할지와 대상에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질문한다. 위로 메시지는 '대상의 감정을 알고 공감하는지'와 '대상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박사과정생 2명과 박사학위 소지자 2명이 예비조사를 평정한 결과, 일치도가 82%였다.

③ 대상참조 기술 -선행연구(Delia & Clare, 1977)를 참고로, 청소년에게 표정이 다른 3쌍의 그림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두 대상의 차이

를 구별하는지 질문한 후, 그림의 각 대상에게 특정한 요구를 하도록 지시한다. 대상참조 메시지는 '대상의 구별된 차이를 인지하며 각 대상의 상황을 고려하며 표현하는지'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박사과정생 2명과 박사학위 소지자 2명이 예비조사를 평정한 결과, 일치도가 91%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1) 연구절차

2001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서울시 관악구 D육아시설의 13명, S중학교 28명, D초등학교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의사소통 기술을 측정하는 면접문항에 대해서 사례들간의 변별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문항을 각 기술별로(설득, 위로, 대상참조기술) 하나씩 추출하여 면접 문항수를 줄였다. 본조사는 2001년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시 소재 10개 아동복지시설 98명과 서울시 관악구 D초등학교 2학급, B중학교 2학급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검사 실시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아동학 전공자들과 연구자가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과정에서 진행된 면접 절차의 전 과정을 녹음하였고,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또한 또래관계 질은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2) 자료분석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구성된 평정 체계를 기준으로 평정된 설득 기술, 위로 기술, 대상참조 기술들을 합산해서 의사소통 기술 점수로 한다. 또한 또래관계 질의 긍정적 요인 20문항과 부정적 요인 20문항에 대해 1점부터 5점까지의 순서로 배점해서 긍정적 요인 점수와 부

정적 요인 점수를 산출했다. 한편, '또래관계 질'을 산출하기 위해서 긍정적 요인 20문항 점수의 합과 역으로 리코딩하여 합산한 부정적 요인 20문항 점수의 합을 합산해서 산출하였

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3원 변량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또래관계 질(연구문제1)

1) 또래관계 질의 일반적 경향

대상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또래관계 질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또래관계 질(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집단	연령	성별	N(%)	또래관계의 질M(SD)	하위요인M(SD)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시설	11세	남	25(25.5)	108.44 (21.59)	61.68 (12.98)	71.08 (15.72)
		여	20(20.4)	113.95 (27.77)	64.35 (18.63)	70.10 (17.22)
	14세	남	23(23.5)	114.35 (15.88)	67.70 (13.54)	72.04 (10.29)
		여	30(30.6)	105.17 (15.97)	65.50 (11.93)	77.33 (11.68)
일반	11세	남	27(23.5)	140.67 (19.46)	63.20 (13.57)	40.94 (10.50)
		여	25(21.7)	143.29 (19.93)	65.90 (13.86)	41.59 (9.67)
	14세	남	31(27)	147.71 (17.87)	69.88 (15.89)	42 (8.26)
		여	32(27.8)	146.10 (15.27)	66.95 (10.95)	40.65 (8.87)

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또래관계 질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또래관계 질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3원 변량 분석 결과는 <표3>과 같다. 또래관계 질은 시설거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97.78, p<.001), 시설청소년의 또래관계 질 수준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았다.

<표 3> 또래관계 질의 비교 결과

변동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시/일	71636.86	1	71636.86	197.78***
성별	27.41	1	27.41	0.08
연령	188.21	1	188.21	0.52
시/일×성별	85.16	1	85.16	0.24
시/일×연령	627.41	1	627.41	1.73
성별×연령	1388.59	1	1388.59	3.83
시/일×성별×연령	425.08	1	425.08	1.17
계	5119449	280		

* p<.05 ** p<.01 *** p<.001

3)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또래관계 질의 긍정적 요인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또래관계 질의 긍정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3원 변량 분석의 결과는 <표4>과 같다. 연령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4.63, p<.05), 11세 청소년보다 14세 청소년의 또래

관계 질의 긍정적 요인 수준이 더 높았다. 이것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우정 및 또래관계에 있어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Selmon, 1980; Smollar & Youniss, 1982)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또래관계의 양상 중 친밀·공감대형성, 사회적·정서적 지지 등의 긍정적 요인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4> 또래관계 질의 긍정적 요인의 비교결과

변동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시/일	174.89	1	174.89	0.94
성별	0.22	1	0.22	0.00
연령	860.56	1	860.56	4.63*
시/일×성별	1.95	1	1.95	0.01
시/일×연령	1.22	1	1.22	0.07
성별×연령	427.55	1	427.55	2.30
시/일×성별×연령	2.27	1	2.27	0.12
계	1271729	280		

* p<.05 ** p<.01 *** p<.001

4)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또래관계 질의 부정적 요인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또래관계 질의 부정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행한 3원 변량분석 결과는 <표5>와 같다. 시설거주 여부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F=446.31, p<.001), 시설청소년의 부정적 요인 수준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는 시설청소년의 또래관계 양상이 부정적이고 적절하지 못함을 반영한다. 시설청소년은 스스로 맺고 있는 또래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한다고 지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설청소년은 또래와의 협상능력이 부족하여 관계가 쉽게 대립·단절되거나,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강요하고 고

집하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한다.

<표 5> 또래관계 질 중 부정적 요인의 비교 결과

변동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시/일	61007.06	1	61007.06	446.31***
성별	50.47	1	50.47	0.37
연령	268.80	1	268.80	1.97
시/일×성별	97.53	1	97.53	0.71
시/일×연령	252.79	1	252.79	1.85
성별×연령	70.86	1	70.86	0.52
시/일×성별×연령	265.18	1	265.18	1.94
계	872980	280		

* p<.05 ** p<.01 *** p<.001

2. 의사소통 기술(연구문제2)

1) 의사소통 기술의 일반적 경향

대상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의 평균과 의사소통 기술의 하위 유형인 설득 기술, 위로 기술, 대상참조 기술의 평균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의사소통 기술(설득 기술, 위로 기술, 대상참조 기술)

집단	연령	성별	N (%)	의사	하위기술M(SD)		
				소통 기술 M(SD)	설득 기술	위로 기술	대상 참조 기술
시설	11세	남	25 (25.5)	11.80 (3.72)	1.56 (1.29)	3.56 (1.91)	6.68 (2.29)
		여	20 (20.4)	15.80 (3.58)	2.70 (1.87)	4.90 (1.02)	8.20 (2.17)
	14세	남	23 (23.5)	14.39 (3.49)	1.83 (1.58)	4.39 (1.40)	8.17 (2.27)
		여	30 (30.6)	16.53 (5.12)	2.43 (2.25)	4.83 (1.58)	9.27 (2.98)
일반	11세	남	27 (23.5)	15.44 (3.81)	2.28 (1.82)	4.34 (1.27)	8.82 (2.52)
		여	25 (21.7)	16.71 (4.02)	2.83 (1.90)	4.80 (1.20)	9.07 (2.69)
	14세	남	31 (27)	19.15 (4.43)	3.50 (2.01)	5.32 (1.75)	10.32 (2.53)
		여	32 (27.8)	20.33 (3.68)	4.50 (2.02)	5.53 (1.68)	10.75 (2.53)

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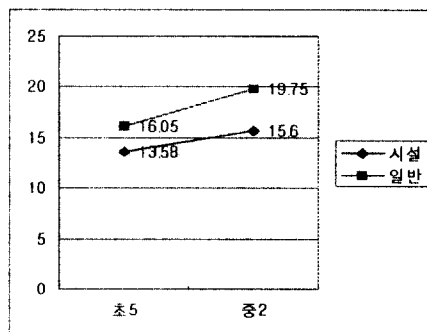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의사소통 기술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3원 변량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41.67, p<.001$), 일반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 수준이 시설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 수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7.93, p<.001$), 남아보다 여아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기술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선행연구들(Allen & Brown, 1976; Burleson et al, 198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연령에 대해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27.57, p<.001$), 11세 청소년보다 14세 청소년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수준이 더 높다. 연령에 따른 역할조망능력의 발달로 청소년은 더 높은 수준의 세련된 의사소통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Ritter, 1979; Selman & Byrne, 197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연령 및 시설거주여부의 상호작용 효과($F=3.90, p<.05$)도 유의하게

<표 7> 의사소통 기술의 비교 결과

변동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시/일	667.33	1	667.33	41.67***
성별	287.18	1	287.18	17.93***
연령	441.49	1	441.49	27.57***
시/일×성별	52.88	1	52.88	3.30
시/일×연령	62.45	1	62.45	3.90*
성별×연령	14.61	1	14.61	0.91
시/일×성별×연령	12.27	1	12.27	0.77
계	86478	283		

* $p<.05$ ** $p<.01$ *** $p<.001$

나타났는데, <그림 1>과 같다. 시설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은 11세 청소년과 14세 청소년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일반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은 11세 청소년보다 14세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이 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의사소통 기술의 상호작용효과

3)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설득 기술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설득 기술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3원 변량분석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설득 기술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시설거주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8.50, p<.001$), 시설 청소년보다 일반청소년의 설득 기술 수준이 더 높았다. 시설 청소년은 대상의 생각이 자신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조망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의 요구만을 단순히 반복해서 조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자신감이 부족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대상의 생각을 변화시키려는 의욕도 부족해서 대상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향도 보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모와의 이별을 경험한 시설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위축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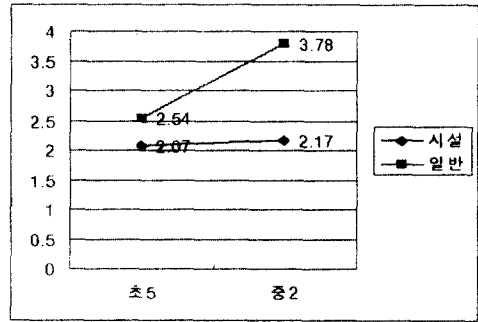
〈표 8〉 설득 기술의 비교 결과

변동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시/일	66.61	1	66.61	18.50***
성별	31.49	1	31.49	8.75**
연령	23.14	1	23.14	6.43**
시/일×성별	1.63	1	1.63	0.45
시/일×연령	23.17	1	23.17	6.43*
성별×연령	1.10	1	1.10	0.31
시/일×성별×연령	1.11	1	1.11	0.31
계	3440	283		

* p<.05 ** p<.01 *** p<.001

음(장희순, 1989)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청소년은 공격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설득하려는 경향도 보였는데, 이는 시설청소년이 다소 공격적이고 적대적 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최일경, 199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성별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8.75, p<.01), 여아가 남아보다 설득 기술 수준이 더 높았다. 여아의 설득 기술이 남아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여아의 유창한 언어 구사 능력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는 연구(Rubin, 1976)와 맥을 같이한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상에게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연령에 대해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6.43, p<.001), 11세 청소년보다 14세 청소년의 설득 기술 수준이 더 높았다. 이 결과는 연령에 따라 설득 기술이 발달한다는 선행연구들(Clark & Delia, 1976; Delia et al, 1979; Ritter, 1979)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역할조망능력이 연령에 따라 발달한다는 선행연구(Selman & Byrne, 1974)를 고려해볼 때, 연령에 따른 설득 기술의 발달은 사회인지적 능력인 역할조망능력의 발달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대

상의 관점을 이해하며 추론하는 능력의 발달로 대상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연령 및 시설거주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F=6.43, p<.05)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데, <그림 2>와 같다. 즉 시설청소년의 설득 기술은 11세 청소년과 14세 청소년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일반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은 11세 청소년보다 14세 청소년의 설득 기술이 매우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설득 기술의 상호작용 효과

4)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위로 기술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위로 기술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3원 변량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시설거주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9.11, p<.001), 시설청소년보다 일반청소년이 더 높은 수준의 위로 기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시설청소년은 대상의 기분을 이해해도 그 기분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식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상의 기분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도 있었다. 한편 대상의 기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사회인지적 능력의 결핍에 기인한다(조경, 1995)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0.25, p<.001$), 남아보다 여아의 위로 기술이 더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Burleson, 1982; Burleson et al, 1986; Burleson et al, 199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성차는 사회화된 방식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남자는 지배적·공격적으로 사회화되는 반면, 여자는 사회적·정서적인 표현을 잘하도록 사회화되었다. 여아가 남아에 비해 상호간에 더 친밀하고, 인정과 돌봄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윤미경, 1998; 이은해·고윤주; Buhrmester & Furman, 1987; Hunter & Youniss, 1982; Parker & Asher, 1993).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다(Bryant, 1982).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여아는 남아보다 더욱 민감하고 세련된 위로 기술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에 대해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0.41, p<.001$), 11세 청소년보다 14세 청소년의 위로 기술이 더 높았다. 이는 연령에 따라 위로 기술이 발달한다고 한 Burleson(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공감능력의 발달로(Bryant, 1982), 대상의 정서상태를 더욱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표 9〉 위로 기술의 비교 결과

변동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시/일	20.87	1	20.87	9.11***
성별	23.46	1	23.46	10.25***
연령	23.84	1	23.84	10.41***
시/일×성별	4.77	1	4.77	2.08
시/일×연령	3.49	1	3.49	1.52
성별×연령	5.17	1	5.17	2.26
시/일×성별×연령	1.61	1	1.61	0.70
계	7260	283		

* $p<.05$ ** $p<.01$ *** $p<.001$

5)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대상참조 기술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대상참조 기술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3원 변량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먼저 시설거주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26.57, p<.001$), 일반청소년이 시설청소년보다 더욱 높은 대상참조 기술을 보였다. 시설청소년은 대상의 차이를 구별할지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사회인지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의 결핍으로 대상의 차이는 구별해도 이를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성별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6.52, p<.01$), 남아들보다 여아들의 대상참조기술이 더욱 높았다. 이는 여아가 관계적·친사회적 성향(최진희, 1999; Berndt, 1982)으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은 대상에 대해 더욱 조심스럽게 요구할 수 있었던 반면, 남자는 대상의 차이를 인지할지라도 두 대상에게 비슷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연령에 대해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9.83, p<.001$), 11세 청소년보다 14세 청소년의 대상참조 기술 수준이 유의하

〈표 10〉 대상참조 기술의 비교 결과

변동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시/일	171.68	1	171.68	26.57***
성별	42.13	1	42.13	6.52**
연령	128.10	1	128.10	19.83***
시/일×성별	12.53	1	12.53	2.25
시/일×연령	1.49	1	1.49	0.23
성별×연령	0.25	1	0.25	0.04
시/일×성별×연령	1.40	1	1.40	0.22
계	26172	283		

* $p<.05$ ** $p<.01$ *** $p<.001$

게 더 높았다. 이것은 대상참조기술의 선행요건인 대상관점조망능력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대상참조기술도 연령에 따라 발달한다는 선행연구들(Delia & Clark, 1977; Alvy, 197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3.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 질간의 관계 (연구문제3)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 질간의 관계는 <표 11>과 같다. 또래관계 질과 의사소통 기술간의 상관관계는 $r=.35$ 로써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의사소통 기술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관계 질이 높고, 의사소통 기술이 낮은 청소년은 또래관계 질도 낮다. 이는 또래수용성과 의사소통 기술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선행연구(Burleson et al, 1992)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또래관계 질의 긍정적 요인은 의사소통 기술 중 대상참조 기술과 유일하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같은 요구라도 대상의 기분상태를 배려하면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청소년이 또래들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관계 질의 부정적 요인은 의사소통 기술 중 대상참조 기술, 설득 기술, 위로 기술 순서로 유의하게 부적 관계를 보였다. 대상의 표정 차이를 구별하며 이에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대상참조 기술이 부족한 청소년은 또래관계를 부정적으로 형성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청소년은 또래들과 더 잦은 갈등과 대립을 경험하고 관계가 쉽게 단절될 것이다. 또한 대상의 기분을 공감하며 위로하는 기술이 부족한 청소년은 또래들과 긴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심리적 지지를 주고받지 못할 것이다.

<표 11>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 질간의 상관관계

구 분	의사소통	의사소통 하위 유형		
		설득	위로	대상 참조
또래관계 질	.35**	.25**	.18**	.30**
또래관계 질의 하위 요인				
긍정적 요인	.14*	.11	.08	.12*
부정적 요인	-.34**	-.25**	-.18**	-.28**

* $p<.05$ ** $p<.01$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시설청소년들과 일반청소년들의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 질간의 관계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우선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 질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 질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첫째, 또래관계 질은 시설거주여부에 따라 다르다. 시설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은 일반청소

년의 또래관계 질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또래관계 질의 긍정적 요인은 연령에 따라, 또래관계 질의 부정적 요인은 시설거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적지지·친밀·공감대와 같은 또래관계 질의 긍정적 요인은 14세 청소년이 11세 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또래관계에 대한 지각이나 기대가 연령에 따라 발달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연령에

따라 또래관계에서의 심리적 요인이 더욱 중요해짐을 반영한다.

또한 갈등이나 대립·일방적 주도·무시나 고립과 같은 또래관계 질의 부정적 요인은 시설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시설청소년이 맺고 있는 또래관계 양상이 부적절하며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또래관계 질의 부정적 요인이 시설거주여부와만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것은 시설청소년이 연령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대체로 또래관계 질이 낮음을 반영한다. 또래관계 질의 긍정적 요인에서는 일반청소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부정적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은 이에 대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시설청소년에게 또래집단은 부모상실의 대체관계망으로 부모결핍으로 초래되는 부정적 영향을 보상할 수 있는 중요한 집단이다. 따라서 시설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둘째, 의사소통 기술은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르다. 의사소통 기술 중 설득 기술, 위로 기술, 대상참조 기술 모두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시설청소년보다 일반청소년이, 남아보다 여아가, 11세 청소년보다 14세 청소년이 더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기술을 보였다. 또한 연령과 시설거주여부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시설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연령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 발달 정도가 작았다. 시설청소년은 적절한 시기에 사회인지적 능력과 의사소통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맥락을 경험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불안정한 초기 가정환경과 집단적인 시설환경으로 인해, 시설청소년은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의 차이는 사회화와 언어적 능력과 있다. 먼저 친사회적이고 관계적 성향으로 사회화된 여아가 독립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성향으로 사회화된 남아에 비해, 대상의 기분에 더욱 공감할 수 있으며 이에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남아보다 여아가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연령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의 차이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의사소통 기술은 역할조망능력과 같은 사회인지적 능력의 성숙(maturity)과 함께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연령이 높은 청소년은 발달된 역할조망능력으로 대상의 상황·기분을 더욱 잘 구별하고 이해하며 조망하면서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기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또래관계 질은 의사소통 기술 중 대상참조 기술, 설득 기술, 위로 기술 순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 또래관계 질의 긍정적 요인은 대상참조 기술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 반면, 또래관계 질의 부정적 요인은 대상참조 기술, 설득 기술, 위로 기술 순서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의사소통 기술은 또래관계 질의 긍정적 요인보다 부정적 요인과 더욱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가진 청소년이 또래관계를 부정적으로 형성하며, 또래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또래관계 질의 부정적 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결과는 또래관계 질이 특정한 의사소통 기술의 결핍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결핍과 관련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의사소통 기술 훈련이 다차원적으로 이뤄져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

결과는 의사소통 기술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이 또래수용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국내 연구가 주로 유아에 한정되어 이뤄졌고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에서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기술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초기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과 의사소통 기술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밝혔다. 다음으로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 질간의 관계를 하위유형별로 밝

힘으로써,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재전략으로 다차원적인 의사소통 기술 훈련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또한 또래에 대한 연구는 또래수용성과 우정, 두 갈래를 중심으로 주로 이뤄졌는데, 이 연구에서는 두 개념을 절충시킨 '또래관계 질'을 측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지각하는 또래관계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폈다. 또래관계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또래관계에 대한 만족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또래관계의 역동성을 조망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참 고 문 헌

- 문은영(1993).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명성(199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영혜·김연진(1997). 아동복지. 서울: 동문사.
- 송미선(1995). 놀이개입 상황에 있어서 유아의 또래 지위에 따른 사회적 행동과 의사소통 기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원경(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미경(1998). 아동의 또래수용과 우정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혜·고윤주(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1.
- 장희순(1989). 시설아동의 학문적 자아개념과 귀인성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윤경(199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행동유형 결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현경(1995). 시설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일경(1995). 시설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진희(1999). 또래 거명에 의한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llen, R. R. & Brown, K. L. (1976). The natur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In R. R. Allen & K. L. Brown(Eds.), *Developing communicative competence in Children*(pp. 245-255). Skokie, IL: National Textbook.
- Alvy, K. T. (1973). The development of listener adapted communications in grade-school children from different social-class backgrounds. *Generic Psychology*, 87, 33-104.
- Asher, S. R. & Oden, S. (1977). Coaching children in

- social skills for friendship making. *Child Development*, 48, 495-506.
- Berndt, T. J. (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Berndt, T. J. & Perry, T. B. (1986). Children's perceptions of friendships as supportive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2(5), 640-648.
- Bierman, K. L. & Furman, W. (1984). The Effects of Social Skills Training and Peer Involvement on the Social Adjustment of Pre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5, 151-162.
-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Buhrmester, D. (1990). Intimacy of friend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justment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101-1111.
- Burleson, B. R. (1982). The Development of Comforting Communication Skill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578-1588.
- Burleson, B. R. (1986). Communication Skills and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An Overview. *Communication yearbook*, 143-180.
- Burleson, B. R. Applegate, J. L., Burke, J. A., Clark, R. A., Delia, J. G., & Kline, S. L. (1986). Communicative correlates of peer acceptance in childhood. *Communication Education*, 35, 349-361.
- Burleson, B. R. Delia, J. G., & Applegate, J. L. (1992). Effects of Maternal Communication and Children's Social-Cognitive and Communication Skills on Children's Acceptance by the peer group. *Family Relations*, 41, 264-272.
- Clark, R. A. & Delia, J. G. (1976).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Persuasive Skills. *Child Development*, 47, 1008-1014.
- Cohen, B. D. & Klein, J. F. (1968). Referent communication in school age children. *Child Development*, 39, 597-609.
- Coie, J. D. &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17-59).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lia, J. G. & Clare, R. A. (1977). Cognitive Complexity, Social Perception, and The Development of Listener-Adapted Communication in Six, Eight, Ten, and Twelve-year-old Boys. *Communication Monographs*, 44, 326-345.
- Delia, J. G. Kline, S. L., & Burleson, B. R. (1979). The Development of Persuasive Communication Strategies in Kindergarteners through Twelfth Graders. *Communication Monographs*, 46, 241-256.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 peer Relations*(pp. 77-106). Hillsdale, NJ: Erlbaum.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a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NY: John Wiley.
- Hecht, D. B., Inderbitzen, H. M., & Bukoski, A. L.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2), 153-169.

- Hunter, F. T. & Youniss, J. (1982). Changes in functions of three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6), 806-811.
- Hymel, S., Rubin, K. H., Rowden, L., & LeMare, L. (1990).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2004-2021.
- Kochenderfer, B., & Ladd, G. W. (1996). Peer victimization : Cause or consequence of school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305-1317.
- Krauss, R. M. & Glucksberg, A. (1969).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 Competence as a Function of age. *Child Development*, 40, 255-266.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 Parker, J. G.,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school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Riggio, R. E. (1986). Assessment of basic skil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3), 649- 660.
- Ritter, E. M. (1979). Social Perspective-Taking Ability, Cognitive complexity and Listener-Adapted Communication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Communication Monographs*, 46, 40-51.
- Rubin, K. H. (1976). Social interaction and communicative egocentrism in preschooler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9, 121-124.
-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is*(Ed.). New York : Academic Press.
- Selman, R. L. & Byrne, D. F. (1974). A structural-developmental analysis of levels of role taking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45, 803-806.
- Smollar, J. & Youniss, J. (1982). Social Development through friendship. In K. H. Rubin & H. S. Ross(Eds.),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s in childhood*. New York : Springer-Verlag.